



리비아 사태와 주요국의 반응

1. 리비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현황
2. 리비아 및 북아프리카 소요사태 주요 동향
3. 각국 및 기업들의 반응
4. 시사점

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권의 민주화 시위가 주요 산유국인 리비아로 번지며 국제 유가 급등, 증시 하락 등 세계경제의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. 범아랍권의 소요사태가 향후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세계 석유·가스 시장에서 리비아가 차지하는 비중 및 금번 사태와 관련한 주요 국과 관련 기업들의 반응을 살펴본다.

1. 리비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현황

□ 리비아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개요

○ 리비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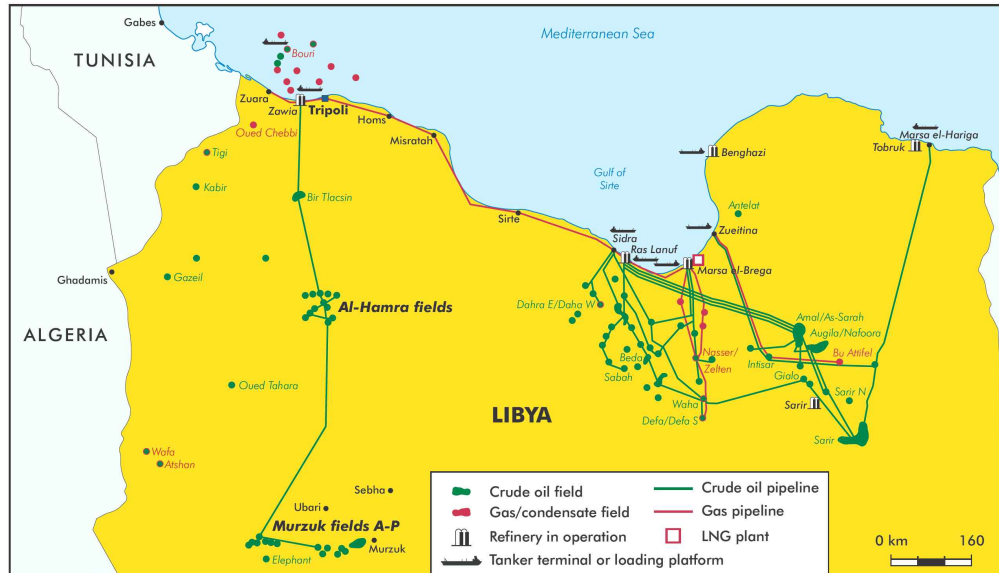
석유 매장량 ('10년 기준)	443억 배럴	세계 9위
석유 생산 ('11년 1월 기준)	169만 b/d	세계 17위
천연가스 매장량 ('10년 기준)	54.4조 ft ³	세계 20위
천연가스 생산 ('08년 기준)	1조 700만 ft ³	세계 32위

○ 석유

-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석유생산의 90%를 수출하는 세계 12위의 수출국
- '09년 150만b/d의 원유를 수출하였으며, '10년 85%를 유럽으로 수출
- 2009년 이탈리아가 376천b/d, 프랑스 205천b/d, 독일 144천b/d를 수입

- 석유산업은 국영석유회사(National Oil Corporation)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, 석유 생산의 2/3가 리비아 동부 벵가지 인근에서 이루어짐.

[그림 1] 리비아 석유 인프라



출처: IEA

○ 천연가스

- 리비아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0위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천연가스 생산을 증가시켜옴.
- 2004년 유럽으로 연결된 520km의 'Green Stream' 파이프라인이 가동된 이후 유럽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함.
 - '08년 368bcf의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였으며, 이중 348.5bcf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
 - '10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탈리아는 26mcm/d, 스페인은 1.5mcm/d의 가스를 리비아로부터 수입하였으며, 가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%와 1.5%임.

[그림 2] 리비아 가스 파이프라인



출처: EIA/DOE

2. 리비아 및 북아프리카 소요사태 주요 동향

□ 튀니지의 시위가 알제리, 이집트 등 아랍권의 항거 촉발 계기

- 튀니지에서 '10년 12월부터 벤 알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었고, 12월 17일 고실업과 식품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Mohamed Bouazizi(26세)의 분신 자살로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더욱 확대됨.
- '11년 1월 15일 결국 1987년부터 장기집권해온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피함.
- 알제리에서도 '10년 12월부터 이미 지역적인 시위 움직임이 있었으며 '11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함. 알제리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'11년 2월 22일 19년 만에 비상사태조치를 해제함.
- 이집트는 30년간 장기 집권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'11년 1월 25일 National Police Day Holiday에 맞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, 2월 11일 군부에 권력을 이양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남.

□ 리비아로 확대된 민주화 시위, 내전의 양상으로 전개

- 리비아에서도 이집트 무바라크의 하야 이후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, 23일 현재 내전에 가까운 양상으로 전개됨.
- 반정부 성향이 강한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를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하였고,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수도인 트리폴리로 시위가 확산됨.
- 군부를 장악한 카다피 정부는 외국인 용병과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하여 강경진압하고 있으나, 고위 관료의 정권 이탈 움직임이 나타남.
 - 내무부 장관, 아랍연맹, 유엔 주재 대사 등 각국 주재 리비아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카다피 정권을 규탄하며 사의를 표명하거나, 시위대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
-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리비아는 현재 카다피 정권을 지지하는 부족과 반대하는 부족으로 나뉘어 대립하여 부족 간 갈등의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.
- 이들 아랍권 국가에서 불만을 야기하는 공통 요인은 빈곤, 청년 실업, 증가하는 식료품 가격, 불평등, 부패, 장기집권이었음.

□ '10~'11년 아랍권 국가들의 소요사태 개요

국가명	일 시	시위형태	정부대응
튀니지	'10.12.18	Mohamed Bouazizi의 분신 자살, 거리시위, 전국적인 시위, 관공서 공격	· 1월 13일 벤 알리 대통령은 '14년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, 1월 14일 내각을 해산하고 6개월 내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. · 1월 14일 대통령과 그 일가 해외 도피, 1월 17일 "National Unity" 정부 구성 · 1월 20일 집권여당 지도자들 사임, 1월 27일 집권여당 정부로부터 축출, 2월 6일 집권여당 활동 중지
알제리	'10.12.28	대규모 거리시위	· 2월 3일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년간 계속된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힘.
요르단	'11.1.14	식료품 값 폭등과 고실업에 항의하는 소규모 거리시위	· 2월 1일 압둘라 2세 국왕은 지지부진한 정치개혁과 실업대책 실패 등으로 비난을 받은 사미르 리파이 총리 내각을 해산하고 장성 출신인 마루프 비키트 전 총리를 다시 총리로 기용
수단	'11.1.17	소규모 시위	
오만	'11.1.17	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억제를 요구하는 소규모 시위	·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오만 국왕의 장기독재정권을 비난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짐.
예멘	'11.1.18	정부 내부에서 대통령에 항의, 거리시위	· 2월 2일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'13년 이후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.
사우디아라비아	'11.1.21	분신자살, 거리시위	· 경찰은 시위 시작 15분 만에 시위를 중단시킴. 약 30~50명의 시위참가자들이 연행됨.
이집트	'11.1.25	전국적인 시위 및 봉기, 대규모 거리시위	· 1월 29일 내각 해산 발표, 2월 1일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'11년 9월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. · 2월 5일 집권여당 지도부 사임, 2월 6일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야권세력과 회동, 반민주적 헌법을 개정하고 긴급조치법도 해제하기로 합의함. ·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.
모로코	'11.1.30	분신자살	· 경제 문제와 집권층 부패로 시위가 일기도 했으나 모로코 왕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어 시위가 정권을 위협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.
이라크	'11.2.6	전국적인 시위, 거리시위	· 누리 알-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연봉을 절반으로 삭감한다고 발표함.
이란	'11.2.14	테헤란 반정부 시위, 대통령 퇴진 요구	
리비아	'11.1.13	주거문제 및 부정부패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	· 1월 27일 정부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함.
	'12.2.15	카다피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	· 탱크, 전투기 및 외국인 용병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실시함. · 카다피 원수는 2월 22일 국영방송을 통해 퇴진의사가 없으며, 시위대와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함.

3. 각국 및 기업들의 반응

□ 이탈리아

-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은 리비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 가스 수입에 대한 긴급방안 마련을 위해 2월 23일 오전 가스위원회를 소집
 - 현재 이탈리아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리비아가 가스공급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,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가스 비축량을 사용할 계획임.

(AP, 2011.2.22; AFP, 2011.2.23; Reuters, 2011.2.22)

□ 사우디아라비아

-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부 장관(Ali Naimi)은 리비아 사태로 인한 세계 석유공급 지장 시 OPEC 회원국들이 즉시 석유 증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, 석유공급 측면에서 충분한 잉여 생산능력이 있음을 밝힘.
 -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잉여 공급능력의 75%인 약 4백만b/d를 보유
 - 리비아는 1월 158만b/d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며, 리비아의 석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도 그 손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영 여분 생산량(spare capacity)의 절반 이하에 해당
 -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의 합의가 없더라도 리비아 사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공급 부족분을 독자적으로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.

(Financial Times, 2011.2.22.)

□ 미국

- 리비아 사태에 대한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였으며, 산업계는 다른 산유국으로 소요 사태가 번져 유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.
 - WTI 유가는 2월 18일 배럴당 \$86.20에서 22일에는 \$95로 급등
- 미국은 리비아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 석유 시장에 당장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
 - 미국 정부는 리비아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시장에 충분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석유 부족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
 - OPEC 회원국의 에너지부 장관들 역시 시장에 당장의 석유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급함.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, 경제회복세로 인한 석유수요

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.

- 미국 EIA의 더그 매킨타이어(Doug MacIntyre)는 “사우디아라비아가 한 달 안에 석유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”하며, 과거 1990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중동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은 지 한 달 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석유 생산량을 거의 2백만 b/d 증가시켰던 점을 언급
-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리비아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함. 리비아에서 활동 중인 미국 석유회사들에게 운영중단을 요청했음.

(The Economic Times, WoodMackenzie, Bloomberg, Reuters, 2011.02.22)

□ 중국

- 중국 자본의 석유가스 사업이 리비아 현지 습격을 당해 사업 기지가 약탈당하고, 부상자가 속출함. 중국 자본의 리비아 철도 및 중국교통건설그룹 소속의 일부 기업 사업도 현지 습격을 당함. 정확한 손실 금액은 아직 파악 중.

- 중국 정부는 전세기를 이용하여 자국 직원 83명을 이집트를 거쳐 중국으로 이송함

(鳳凰網, 2011.2.23)

□ 일본

- 일본 경제산업성, 중동·아프리카 정세 연락회의 개최
 - 경제산업성은 긴박감이 지속되는 중동·아프리카의 정세를 감안하여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연락회의를 성 내에 설치한다고 2월 22일 발표
 - 심의관들로 구성된 연락회의는 2월 23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, 동 회의에서는 중동·아프리카 지역 정세와 원유 가격 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할 목적임.

(日本經濟新聞, 2011.2.23)

□ 러시아

-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반테러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중동 사태가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,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전망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.
-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리비아 시위와 같은 사태들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이며, 러시아는 이에 대해 장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함. 또한 그는 이 같은 사태가 러시아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함.

(vedomosti.ru)

- 2월 24일 푸틴 총리 판톰파워 EU 상임의장과의 회동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임.

(Rosbalt.ru)

□ IEA

- IEA 전략비축유 사용여부 이번 주에 결정
 - IEA는 중동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략비축유 방출 여부를 금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
 - 2월 22일 이전에 리비아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유국들이 예비 생산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합의를 도출하였음.
 - IEA는 현재 석유시장에 충분한 양의 석유가 있으며 IEA는 리비아의 상황을 주시하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.

(Wall Street Journal, 2011.2.22.)

□ 기업들의 반응

- 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
 - 이탈리아 Eni: '09년 리비아로부터 평균 244,000b/d를 생산
 - Eni는 \$68억에 달하는 리비아 석유가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(기업 총 자산포트폴리오의 7%에 해당) 주요 국제석유회사(IOC) 가운데 리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음.
 - 프랑스 Total: '10년 리비아 광구로부터 평균 55,000b/d(회사 생산량의 2.3%)를 생산
 - 스페인 Repsol-YPF: '10년 리비아로부터 평균 34,777b/d(회사 생산량의 3.8%)를 생산
 - BP와 Shell은 리비아에 탐사부문 자산만 보유
- 국제석유회사들의 자산은 대부분 리비아 동부의 소요사태에 근접된 Sirte 분지에 집중되어 있어 조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으며¹⁾,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상황임.
 - Eni는 대부분의 인력을 철수시키며, 일부 석유 및 가스 사업을 중단
 - Total의 관계자는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한편, 현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소수의 근로자들만 잔류

1) 국제석유회사들 중 Repsol-YPF는 Sirte 분지 이외의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.

- Repsol-YPF는 2월 21일에는 조업을 지속하였으나, 2월 22일에 생산을 중단
- BP는 리비아 서부의 석유가스 탐사작업을 중단하고, 일부 인력들이 철수함.
- ExxonMobil은 리비아 해상유전 시추작업을 하고 있지만, 작업이 활발하지 못함.
- ConocoPhillips의 관계자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.

(Forbes, AP, AFP, EIU, WoodMackenzie, 2011.2.22.)

4. 시사점

□ 리비아 사태에 대응하는 시장안정화 움직임

- 중동·북아프리카 전역으로 소요사태가 확산됨에 따른 불안요인으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- 이집트 사태와는 달리 주요 석유 수출국인 리비아 사태가 국제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리비아의 공급에 의존도가 큰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미국, 일본 등을 중심으로 시장안정화의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.
- 사우디아라비아 등 시위사태가 자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석유 수출국들도 미국,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지원을 약속받기 위해 조속한 시장안정화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측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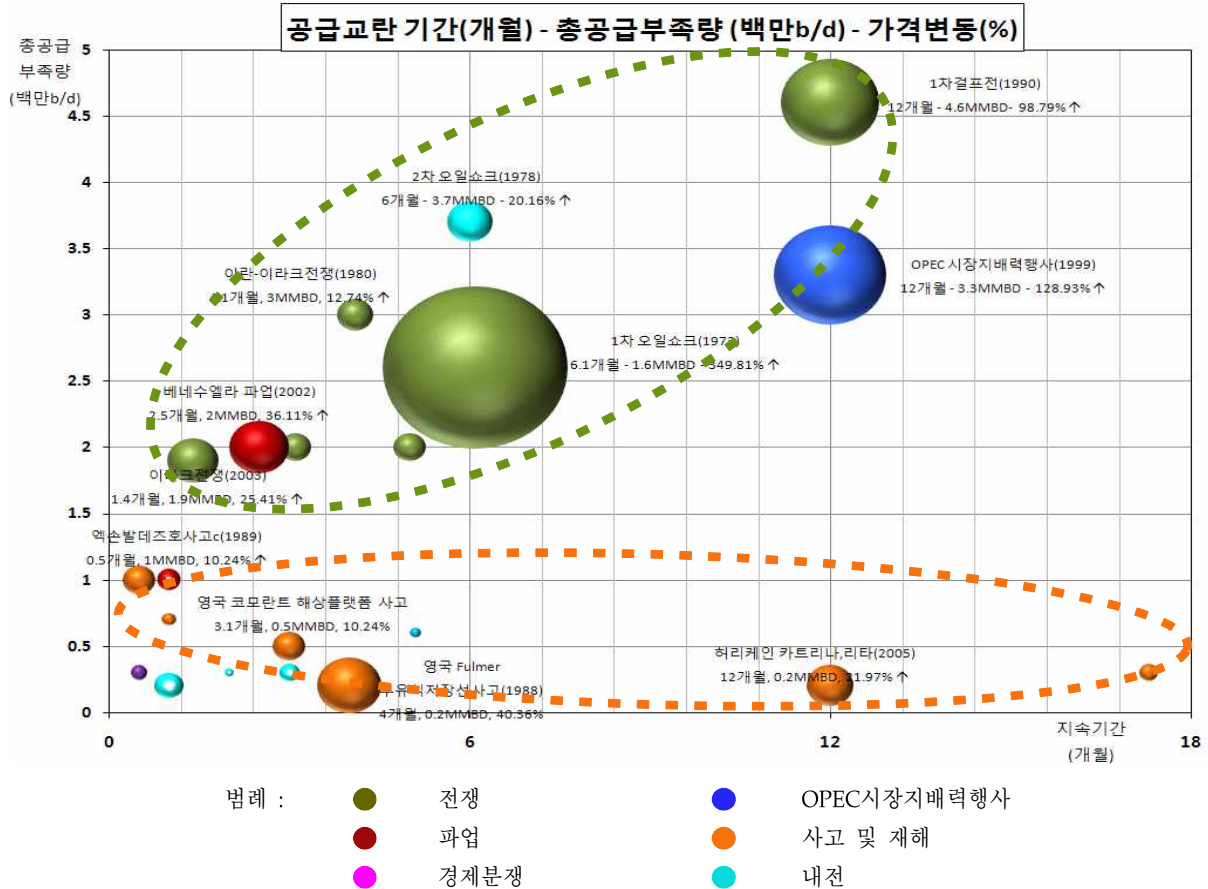
□ 석유가스 시장에 대한 영향

- 단기적으로 소요사태 및 혼돈으로 공급설비 파손, 조업중단 등 공급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 발생이 예견됨.
- 리비아 사태가 조기에 종료된다 해도 정국안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수 있음. 특히 현 상황이 본격적인 내전으로 증폭되는 경우 석유공급의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음.
- 이미 카다피가 석유시설을 파괴하라는 외신보도가 나왔으며, 카다피 반대 부족도 석유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공급차질이 불가피해 보임.
-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리비아의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, 카다피 정권이 와해되는 경우에도 부족 간 갈등이 지속되어 안정적인 정권의 확립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리비아와 석유생산 수준이 유사한 알제리에서도 공급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경우, 세계 석유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. 이 경우 국제석유가격은 2008년의 배럴당 \$145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.
- 배럴당 \$120을 넘어설 경우, 유가가 급격히 폭등할 가능성이 있으며, 노무라 증권에서는 배럴당 \$220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어 투기적 세력에 의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음.
-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 등에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될 경우, 유가 예측이 무의미한 수준의 3차 오일쇼크에 비견되는 유가 급등이 예상됨.

참고 자료

[그림 3] 석유위기 유형별분포

(가로축: 기간, 세로축: 공급부족량, 원크기: 유가상승률)



전쟁, 내전 등 물리적 분쟁의 특징

- 아랍-이스라엘 전쟁, 이란-이라크 전쟁, 1차 걸프전, 이라크전쟁 등의 과거 산유국이 관련된 물리적 분쟁으로 인한 공급차질의 지속기간은 1.4 ~ 12개월로 평균 5개월 지속되었으며, 공급 감소량은 평균 280만b/d임.
- 산유국이 관련된 분쟁으로 그 여파가 전세계 소비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며, 공급부족량도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임. 현대전의 특성상 전면적인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, 생산설비 파손 등으로 공급차질의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.
- 부족물량을 충족할 수 있는 산유국들의 잉여 생산능력이 존재하더라도, 즉각적인 생산증대 또는 원유도입선 대체가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음.

자료: 정우진 외(에너지경제연구원, 2010)

참고 자료

주요 석유위기 개요

	사 안(발생시점)	기간 (개월)	총공급 차질량 (MMBD)	가격 변동율	위기유형	직전월 가격(\$/b)	위기 기간중 최고가 (\$/b)
1	이란유전국유화('51.3)	44.7	0.7	-	경제적마찰	-	-
2	수에즈 전쟁('56.11)	5	2	-	전쟁	-	-
3	시리아 통과수수료 분쟁('66.12)	4	0.7	-	경제적마찰	-	-
4	6일전쟁('67.6)	3.1	2	-	전쟁	-	-
5	나이지리아 내전('67.7)	16.3	0.5	-	내전	-	-
6	리비아가격논란('70.5)	9.2	1.3	0%	경제적마찰	1.80	1.80
7	알제리-프랑스 분쟁('71.4)	5.1	0.6	0%	내전	2.18	2.18
8	레바논정치투쟁('73.3)	3.1	0.5	0%	내전	2.59	2.59
9	아랍-이스라엘 전쟁('73.10)	6.1	1.6	349.81%	전쟁	2.59	11.65
10	레바논내전('76.4)	2	0.3	-0.74%	내전	13.51	13.41
11	사우디 유전파손('77.5)	1	0.7	1.81%	사고	14.36	14.62
12	이란 혁명('78.11)	6	3.7	20.16%	내전	14.63	17.58
13	이란-이라크전쟁('80.10)	4.1	3	12.74%	전쟁	34.46	38.85
14	영국 파이프 알파 해상플랫폼폭발사고('88.7)	17.3	0.3	3.48%	사고	15.50	16.04
15	영국 펄머 부유저장선 사고('88.12)	4	0.2	40.36%	사고	12.66	17.77
16	엑손발데즈 사고('89.3)	0.5	1	10.24%	사고	17.77	19.59
17	영국 코모란트 해상플랫폼사고 ('89.4)	3	0.5	10.24%	사고	17.77	19.59
18	이라크-쿠웨이트전쟁('90.8)	12	4.6	98.79%	전쟁	16.54	32.88
19	대 이란 수입금지('95.8)	1	0.2	0.24%	경제적마찰	16.50	16.54
20	노르웨이 파업('96.5)	1	1	-5.67%	파업	21.33	20.12
21	나이지리아지역분쟁('97.3)	1	0.2	-8.24%	내전	20.88	19.16
22	나이지리아지역분쟁('98.3)	3	0.3	-3.83%	내전	13.32	12.81
23	OPEC의 감산조치('99.3)	12	3.3	128.93%	시장지배력 행사	12.10	27.70
24	베네수엘라파업 ('02.12)	2.5	2	36.11%	파업	23.68	32.23
25	이라크전쟁 ('03.3)	1.4	1.9	25.41%	전쟁	32.23	29.23
26	허리케인Caudette('03.7)	0.5	0.3	2.68%	재해	27.22	27.95
27	허리케인카트리나('05.8)	12	0.2	21.97%	재해	52.79	64.39
	평균	6.7	1.2	32.0%		17.6	20.8

주1: 가격변동률은 공급차질 발생 직전월 가격과 공급차질기간중 최고가 사이의 가격차이로 계산(가격은

EIA에 공시된 미국정유사원유수입가(월별평균가)를 사용)

주2: 2003년 이라크전쟁은 기간은 1.4개월에 불과하나, 가격변동률은 전후 불안시기(19개월간)를 포함

주3: 경제적 분쟁에는 금수조치(embargo), 국유화, 가격분쟁, 통과수수료 분쟁 등을 포함

자료: 정우진 외(에너지경제연구원, 2010)

-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민주화 시위 확대가 국제 석유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함.
 - 이들 주요 석유공급국들이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해 얻는 수익이 국가예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, 석유·가스의 수출 지속은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써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석유가스 공급물량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됨.
 - 이란의 민주화가 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석유시장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, 장기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제재를 받는 이란의 석유가스 수출 통로가 개방되어 석유·가스 공급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또한 이러한 일련의 시위가 동 지역에서 민주적 정치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다면, 보다 안정적인 자원개발 진출이 가능해질 수도 있음.
 - 투명하고 민주적인 법체계 위에서 성립한 계약을 통해 법적으로 사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, 향후 유사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음.
 - 중국의 경우, 리비아, 수단 등 아프리카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법률 보장이 없는 정치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어, 리비아 소요사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.
- 금번 범아랍권의 소요사태는 우리에게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석유수입선의 다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임.
 - 중동·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도 상승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의 자원 개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 - 과거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지연되던 북미지역의 비전통 석유가스자원, 남미의 심해자원 개발 등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자원 개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.

도현재 연구위원 (hjdoh@keei.re.kr)
이석호 전문연구원 (seokho.lee@keei.re.kr)